

## 제2회 충청광역연합의회(임시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 1 차

## 충청광역연합의회사무처

일 시 2025년 2월 27일 (목) 14시 00분

장 소 충청광역연합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2025년도 제1회 충청광역연합 추가경정 예산안

## 상정된 안건

- 2025년도 제1회 충청광역연합 추가경정 예산안(연합장 제출)(의안번호 48) ..... 2면

(14시 01분 개의)

○위원장 구형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회 충청광역연합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동료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수고 많으십니다. 위원님들의 열정과 헌신에 감사드립니다. 이수현 연합사무처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치하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오늘은 연합장이 제출한 제1회 충청광역연합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한 후 예산안 조정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심사에 앞서 회의 진행 및 심사 방법에 대하여 제안하고자 합니다.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 예비심사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예산안을 심사하고 조정을 거쳐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내용을 핵심 사항 위주로 요약해서 질의하시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 1. 2025년도 제1회 충청광역연합 추가경정 예산안(연합장 제출)(의안번호 48)

(14시 02분)

○ **위원장 구형서**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1회 충청광역연합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이수현 연합사무처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연합사무처장 이수현** 연합사무처장 이수현입니다.

존경하는 구형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안경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지역 의정 활동 등으로 바쁘신 가운데 충청권 공동 번영과 상생발전을 위해 충청광역연합의회에서 의정 활동을 펼쳐주시는 데에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5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충청광역연합의 조기 안정과 효율적인 재정 운용을 위해 내부유보금을 활용하여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세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4개 시도 부담금 56억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변동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분야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내부유보금 4억 6100만 원을 감액하고 일반공공행정 분야 1억 6100만 원, 문화 및 관광 분야 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부서별 세출예산 편성 내역입니다.

총무담당관 세출예산은 7억 8555만 원으로 2025년 당초 예산 6억 5955만 원 대비 1억 2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 내역은 의원 국제교류 지원 2885만 원, 위탁교육비 1102만 원을 신규 편성하고, 의정 수행 및 지원 1173만 원, 의원경비 744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초광역자치과 세출예산은 29억 2279만 원으로 2025년 당초 예산 33억 4879만 원 대비 4억 2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 내역은 이번 1회 추경 예산안 편성을 위해 내부유보금 4억 6100만 원을 감액하고 청사 관리와 행정정보시스템 유지보수에 3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초광역산업문화과 세출예산은 15억 6083만 원으로 2025년 당초 예산 12억 6083만 원 대비 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 내역은 충청권 광역투어패스 운영 1억 5000만 원, 충청권 광역시티투어 운영 1억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구형서 위원장님, 안경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충청광역연합 출범 첫째 모든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의 자료는 제1차 본회의 부록으로 보존함)

○ **위원장 구형서** 이수현 연합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상희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상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이상희입니다.

2025년 제1회 충청광역연합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25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편성 현황은 총예산 규모 56억 원으로 2025년도 당초 예산액 대비 증감은 없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일반공공행정 분야로 1억 6100만 원을 증액 편성, 문화 및 관광 분야 3억 원을 증액하여 총 4억 6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예비비 4억 6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쪽 검토의견입니다.

충청광역연합의 효율적인 청사 관리 및 업무 환경 개선과 4개 시도의 관광 연계 강화 및 지역 경제 활성화 도모를 위한 사업 추진과 의회 운영 및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지원하고자 이번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초광역산업문화과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액 대비 3억 원 증액하여 15억 6083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지역 관광 활성화 사업으로 충청권 광역투어패스 운영 사업 1억 5000만 원, 충청권 광역시티투어 운영 사업 1억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들은 4개 시도에 지역적으로 분산되어 있는 관광시설과 지역문화를 연계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으며, 민간위탁 전 철저한 계획 수립으로 4개 시도가 편차 없이 주요 관광지 및 문화관광 자원을 연계하는 것이 성공적 추진이 될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관광 서비스 체계 구축을 위한 각종 시책 추진 및 정책을 수립·시행하고, 해당 사무 수행을 위해 관광상품 개발 및 유관 기관 협력 등 연계 추진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아울러 민간위탁 동의안은 사전절차를 완료하여 민간위탁비 예산편성을 요구하여야 하나 동의안과 예산안을 동시에 제출하였습니다. 동일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타 사항은 2025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의 자료는 부록으로 보존함)

○ **위원장 구형서** 이상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한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 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다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 등을 거쳐 예비심사를 한 사항으로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의석에 놓아드린 예비심사보고서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비심사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심사에 필요한 자료 요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동 안 건 심사를 위하여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어서 연합장이 제출한 2025년도 제1회 충청광역연합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현미 위원** 안녕하세요? 김현미입니다.

저희가 상임위 심사했을 때 좀 보지 못한 것들이 있어서 여쭙보겠습니다. 저희 결합상품이 네 가지가 있습니다. 이거는 분석을 하셔서 이렇게 나온 건가요, 아니면 결합상품에 대해서 변경이 가능한 건가요?

○ **연합사무처장 이수현** 연합사무처장 이수현입니다. 김현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예시를 들기 위해서 한 사업 상품이기 때문에 변동 가능한 사항입니다. 고정된 게 아니라 저희가 투어패스나 관광 관련돼서 가안으로 계획을 세워본 사항입니다.

○ **김현미 위원** 제가 궁금한 거는요, 지역 관광 활성화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체류형 관광 유입 확대를 하기 위해서 하시는 거잖아요?

○ **연합사무처장 이수현** 예, 맞습니다.

○ **김현미 위원** 저희들한테 주신 예를 보면 이게 체류형이 가능할까, 그리고 만약에 이게 정확하지 않더라도 예시로라도 주었을 때는 분석이 됐어야 되고 연결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 **연합사무처장 이수현** 김현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죄송하지만 짧은 시간에 실무적으로 검토하면서 만든 계획이다 보니까 조금 느슨할 수도 있고 확실한 포인트가 없다고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추경을 편성해 주시면 저희가 민간위탁 하기 전에 그 부분을 검토하면서 충분히 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김현미 위원** 그리고 지금 광역투어패스를 하는 타깃을 어떻게 정하고 계신 거지요?

○ **연합사무처장 이수현** 김현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타깃을 잡는 부분은 저희 충청권 지역민들을 위주로 하는 것도 있지만, 저희 충청권에 대해서 외부인들을 많이 유입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기 때문에 특정 타깃이 어느 충청권인이라고 한정 짓지는 않고 있습니다.

○ **김현미 위원** 안을 드리자면 결합상품을 1, 2, 3, 4로 하더라도 1번의 결합상품은 타깃이 가족일지 뭐 이런 것들이 나누어져 있어야 되는데 같이 보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3번 같은 경우 하면 이 상품 누가 오겠어요? 아무리 예시라도.

그러니까 결국은 결합상품을 하더라도 1번부터 4번까지 중에서 1번 상품의 타깃은 가족 단위의, 충청권이라든지 아니면 외부에서 문화유산을 보려고 오는 사람이라든지 이런 타깃이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러프하게 해 버리면 저는 이거 예산 낭비 일 것 같은데요?

○ **연합사무처장 이수현** 김현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가족을 대상으로 한다거나 아니면 친구라든지 이런 특정인을 타깃 삼아서 결합 프로그램을 만들려고는 하고 있는데 말씀하신 부분처럼 저희가 대표 시설을 임의적으로 찾다 보니까 이렇게 러프하게 나온 부분은 죄송합니다. 이걸 저희가 섬세하게 챙기겠습니다.

○ **김현미 위원**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용역이 되었어야지 이 안들이 제대로 나왔을 것 같아요. 이 자체적으로 보더라도 결국은 페스텔(PESTEL) 분석이라든지 아니면 내부적인 환경 분석을 했다고 하면 이렇게까지 아무리 예시지만 나오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희 상임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어찌 되었건 지금 스타트가 중요한 거고 이것들로 하여금 충청광역에 있어서의 사업들이 확장될 수 있는 것들을 찾아내야 되는데 첫 사업부터가 어그러지기 시작하면 다른 사업들도 저는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세밀하게 외부·내부 다 분석하시고 그 지역을 외부에 있는 분들이 어디를 많이 찾아오셨는지, 왜 찾아오셨는지 이런 것들이 다 분석이 되어서 결합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연합사무처장 이수현** 김현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부분 저희가 준비하는 시기가 짧다 보니까 부족한 게 있어서 죄송한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요, 저희가 용역도 당연히 진행을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민간위탁 들어가기 전에 실무적으로 꼼꼼하게 찾아보고 챙겨보고 그 부분은 사전에 보고드리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현미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구형서** 김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경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경자 위원** 안경자 위원입니다.

이수현 처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예산 심사 준비하시느라고 애 많이 쓰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존경하는 김현미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거에 조금 더해서 말씀 드리자면 지금 심사보고에도 나왔듯이 어떻게 보면 예산 편성 전 사업 추진을 위해서 동의를 먼저 이루어졌고 이런 과정들은 처음 추진단에서 광역으로 넘어오면서 시간이 너무 촉박했다고 이해는 됩니다.

그런데 김현미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용역이 먼저 이루어지고 이 사업이 이루어져야 함에는 모두가 공감하는 부분인데, 아까 예시도 어떻게 보면 조금 미흡했다라고 말씀을 주시는데 거기에 더해서 준비를 하시겠다라고 하니깐 한 말씀 드리자면 늘 그런 것 같아요, 저희 관은 시민들한테 뭔가를 먹여주려고 하는, 주려고만 하는 그거에 포커스를 맞추다 보니까 시민의 눈높이를 조금 간과하는 게 아닌가.

현재 각 시도에 지금 시티투어가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그렇지요?

운영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 이용객들이 사실 많지는 않아요. 그래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의지가 있기 때문에 이용을 하고 있는데, 그들이 느끼는 어떤 ‘이게 좀 필요했으면 좋겠다’라는 설문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들이 필요로 하는 걸 우리가 욕구 충족을 해 주면 더 좋은 정책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좋은 코스라고 우리가 생각하지 말고 설문을 디테일하게 해서 그들이 거기에 가서 시티투어를 했을 때 어떤 부분을 보완해 주면 좋겠다는 것을 먼저 설문을 하고 그다음에 이 코스를 정해 주셨으면 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당부를 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야 이 예산이 적절한지 부족한지 어떤지가 나와서 내년 예산을 편성할 때도 증액을 하든 감액을 하든 더 좋은 결과가 나오리라는 생각을 하면서, 굉장히 힘들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적은 인원에 이렇게 급격하게 서류를 만들어내시는 것도 대단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좀 더 좋은 충청광역연합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안 주셔도 될 것 같아요.

○ **연합사무처장 이수현** 예, 감사합니다.

○ **위원장 구형서** 안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옥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옥규 위원** 이옥규 위원입니다.

처장님, 광역투어패스하고 광역시티투어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 **연합사무처장 이수현** 이옥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광역투어패스라는 것은 예를 들면 차가 있는 사람들이 자차를 이용해서 여러 곳에 방문을 하면, 예를 들어서 무슨 카페를 방문했을 때 저희가 할인금을 지원해 주면 방문한 지역 업체도 같이 상생하는 그런 프로그램이고요, 시티투어 같은 경

우에는 버스를 이용해서 지역 포인트를 잡아서 관광지를 연결시켜서 방문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쉽게 다시 말씀드리면 투어패스 같은 경우에는 차를 이용할 수도 있고 개별적으로 이동하면서 본인들이 활용하는 거고, 시티투어는 차량이 없는 뚜벅이족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이런 유명한 곳으로 연결시켜 놓은 데를 방문할 수 있도록 하는 상품입니다.

○ **이옥규 위원** 사업을 동시에 계상하셔서, 위탁 동의안이 올라오기 전에 사전절차를 미이행하고도 동일한 사업, 그러니까 광역시티투어하고 투어패스를 동일하게 해야 할 의제가 있었는지 묻고 싶었는데요, 일단 제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도 말씀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사전에 선행되어야 될 -조례라든가 상위법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사전절차를 꼭 거친 다음에 처음부터 꼼꼼하게 따져 물어서 가자”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번에 민간위탁비를 예산편성 하면서 사전에 절차 없이 의회 동의를 얻지 않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게끔 꼼꼼하게 챙겨 주시고요, 반복되지 않아야 된다는 건 알고 계시지요?

○ **연합사무처장 이수현** 예, 잘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 **이옥규 위원** 이렇게 광역시티투어나 광역투어패스 운영을 민간위탁 하신다고 하셨는데 동일한 업체에다 위탁을 하시는 건 아니지요?

○ **연합사무처장 이수현** 예, 이거는 저희가 공개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특정 업체를 지정해서 하는 건 아닙니다.

○ **이옥규 위원** 그래서 차후에 예결위에서, 본회의장에서 예산이 통과되게 되면 사전에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서를, 꼼꼼하게 작성하신 부분을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고요, 같이 공감하는 쪽으로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 **연합사무처장 이수현** 예, 잘 알겠습니다.

○ **이옥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구형서** 이옥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성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성태 위원** 안녕하십니까? 조성태 위원입니다.

앞서 위원님들께서 절차나 여러 가지에 대해서 좋은 말씀 해 주셨고요, 소비자가 시티투어나 광역투어패스를 할 때에 있어서 소비자들이 굉장히 현명들 하셔서 할인에 그렇게 엄청 큰 메리트를 느낀다고 하지는 못하거든요.

지금 패스 자체가 할인이랑 충청연합 전체 초광역권에 대해서 유명한 장소를 같이 돌아보는 게 거의 주된 내용 같아요. 그런데 그 주된 내용과 할인이 또 주된 내용 같아서 할인보다는 또 다른 메리트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해서, 아까 김현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연령이나 여러 가지 카테고리도 보겠지만, 기본적으로

투어에 있어서 여행경비나 할인에 소비자들이 그렇게 고민을 많이 안 하는 것 같아요.

꼭 가야 할 데는 저희가 차량으로도 꼭 가보는 거 여기 계신 주무관님들도 다들 그렇지요? 주말에 가고 싶은 데 있어서 금액에 크게 구매받지 않는 것 같습니다.

물론 비싸다면 부담감이 있어서 거기에 저희 공에서 일부 할인 상품이나 결합상품을 만들면 굉장히 좋겠지만 저희가 더 뛰어난 상품을 만들고, 만약에 할인 상품보다는 지역 상품권이라든가 바우처를 통해서 그 지역에서 소비할 수 있게끔 하는 부분이 어떨까 해서 오늘 와서 뭔가 크게 꼬집거나 하는 것보다는 하시는 데 있어서 절차 이런 부분에서 잘 하신다고 하니 저는 처음에 저희가 용역을 낼 때도 할인 상품이 아닌 바우처나 그 지역에서 소비할 수 있는 지자체 협업을 먼저 이끌어내는 부분에 있어서 고민 더 해 봤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 **연합사무처장 이수현** 조성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투어패스라든지 시티투어를 할 때 가장 선호하는 곳을 아까 말씀하신 부분처럼 설문을 받는다가나 해서 최대한 가장 선호하는 상품을 개발하도록 노력하겠고요, 말씀드린 대로 지역 내 소비가 가능한지에 대한 부분도 고민을 해서 저희가 민간위탁 하기 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촘촘하게 챙겨보고 이 부분을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보고드리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조성태 위원** 예, 답변 감사드리고요, 바우처에 대한 것도 고민 꼭 좀 부탁드립니다.

○ **연합사무처장 이수현** 예, 알겠습니다.

○ **조성태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구형서** 조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광운 위원** 김광운 위원입니다.

추가경정 예산안 세출 총괄표 15에 보시면 ‘사회복지’라고 6000만 원하고 그 밑에 ‘노동’ 해가지고 6000만 원 하셨는데, 노동은 무슨 노동이에요?

○ **연합사무처장 이수현** 죄송하지만 예산안 15페이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 **김광운 위원** 예, 추가경정 예산안의 15페이지. 보시면 ‘노동’이라고 이렇게 해 놔서 뭘 노동인지 모르겠고 그 밑에도 ‘농림해양수산’ 해서 ‘농업·농촌’이라고만 해 놔지 어디에 뭘 쓰는지 어느 정도는 여기 나와 있어야 되는데 전혀, ‘사회복지’하고 ‘노동’ 이렇게 해 놓으면.

○ **연합사무처장 이수현** 김광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동이라는 것은 저희 예산안 28페이지에 보면 인재 양성 지원·육성에 6000만 원 사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농업·농촌은 청년 농부들 네트워크 관련된 예산 7000만 원이 있는 사항입니다.

지금 15페이지에 나와 있는 건 기능별로 표기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 사항인데…….

○ **김광운 위원** 그러니까 저도 그 얘기는 알겠어요.

그래도 노동보다는 지금 얘기하신 대로 근로자 인건비면 인건비 정도는 이렇게 해 줘야지 어느 정도는 알 수 있지 그냥 보면, 예산표를 봐서는 그냥 ‘노동’ 이렇게 써 놓으면.

○ **연합사무처장 이수현** 김광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최송하지만 이 기능별 코드 자체를 저희가 임의 작성 한 게 아니라 정부에서 편성 코드가 정해진 사항입니다.

○ **김광운 위원** 아, 코드로만 해 놓은 거예요?

○ **연합사무처장 이수현** 예, 그래서 저희가 임의로 노동이라고 한 사항은 아니라는 걸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김광운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코드로 해서 코드 분류표를 여기다 적었다는 거지요?

○ **연합사무처장 이수현** 예, 맞습니다.

○ **김광운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저는 어쨌든 간에 여기 코드 번호표가 86이라고 되어 있더라도 노동이면 최소한 그 옆에 괄호를 치든지 해서 인건비면 인건비 이렇게 했으면 우리가 보기도 쉬울 텐데 그런 게 없는 게 조금 아쉬워서 말씀드렸습니다.

○ **연합사무처장 이수현** 예, 다음에는 보강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광운 위원** 아니, 다음에 보강하는 게 아니라, 다음 예산이 또 언제 있을지 모르지만 그때는 조금 그래도, 코드에 노동이라고 되어 있어도 괄호 정도의, 구체적이지는 않지만 그래도 어디에 사용되는지 정도 우리가 한눈에 볼 수 있게끔만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연합사무처장 이수현** 예, 잘 알겠습니다.

○ **김광운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구형서** 김광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한영 위원** 이한영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당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역투어패스 결합상품 관련해서 각 시도에 보면 관광안내소나 관광안내센터가 있을 텐데 이런 부분하고도 충분히 협업을 해서 지역의 특성에 맞는 결합상품을 함께 진행했으면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의견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연합사무처장 이수현** 이한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기존에 시도에서 운영하는 투어패스 사업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저희가 이 부분을 할 때 연합에서 독자적으로 한다기보다는 각 시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부분을 잘 파악해서 연계시켜서 훌륭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이한영 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구형서** 이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현미 위원** 하나만 여쭙보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산 잡을 때 프로테이지를 구성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저희 예산이 지금 한 56억 되잖아요, 충청연합 예산이 56억. 그중에 의회가 한 6억 좀 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 예산 중에서 언론보도·홍보콘텐츠가 8% 정도 예산을 차지하고 있어요.

저희들이 이 예산 비율을 어떻게 놓고 쓰는지 궁금합니다.

사실 충청광역연합의회 그리고 연합도 예산이 적기는 하지만 적은 예산으로 4개의 시도 지자체가 갈 수 있는 방향이 저는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입장에서는.

그런데 예산 비율을 보니까 이렇게 예산 운용하면 저희들 최초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점이 듭니다. 56억의 한 8%가 언론·홍보콘텐츠라는 말이지요.

예산에 대한 고민 충분히 하셨겠지만 최초에 운영되고 최초의 행·재정을 만들어가는 게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사실 밖에서는 충청광역연합 그리고 의회가 혹시 유명화되지 않을까 우려하시는 분들도 많다는 말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최고의 목표는 4개의 시도가 상생할 수 있는 방향으로 예산의 초점이 맞춰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고민을 하시고 예산 비율 맞추셨겠지만 퀘스천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구형서** 김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그럼 한 말씀만 드릴게요.

계획을 수립해 주신 것들에 대해서는 일부 감사한 마음도 있는데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계점도 있습니다. 4개 시도 광역을 함께 아우르면서 사업으로 뭔가 만들어낸다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인데, 어찌 됐든 크지 않은 예산 속에서 이런 계획을 하셨는데 앞으로 우리의 미션은 시도 광역에게 조금 더 많은 예산을 받아서 좀 더 풍성한 사업들을 진행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전제 조건이 뭘겠습니까?

우리가 계획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각 시도에서 돈 주려고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더 많은 고민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지금 시티투어·투어패스 관련해서 지난 회기 때 삭감을 했었던 사항을 다시 사업을 추진하는 거예요. 다만 아쉬운 것은 그때 당시에도 유사한 우려의 말씀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해당 지역에 갈 만한 데가 여기밖에 없냐?”, “동선을 이렇게 짜는 게 맞냐?” 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대동소이하게가 아니라 거의 동일하게 올라왔지요, 내용이.

맞습니까, 사무처장님?

○ **연합사무처장 이수현**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당초 예산 할 때는 저희가 3억씩을 계상했던 사업인데, 프로그램상 현재로서 특별하게 바뀌었다기보다는 저희가 시범 사업적으로 표기를 했던 건데, 특별하게 아직은 구체화된 사업은 없기 때문에 비슷합니다.

○ **위원장 구형서** 이런 거예요. 이게 성의 문제인데, 그때 당시에 이러저러한 이유들로 인해서 삭감이 됐었고 그런 우려들도 분명히 말씀을 하셨으면 조금의 검토는 필요했었을 것이다.

우리가 고민을 해 보니까, 물론 민간위탁 주면 내용이 확 달라질 수도 있어요. 그래도 일부 고민을 한 흔적이라도 있고 그런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해 주지 못한 건 한편 아쉬움이 있는데, 지금 예비심사보고서 17쪽을 보시면요, 결합상품이 1부터 4까지 있어요. 보이시죠?

○ **연합사무처장 이수현** 예.

○ **위원장 구형서** 대전오월드 3만 4000원이라고 적혀 있잖아요. 그렇지요?

○ **연합사무처장 이수현** 예.

○ **위원장 구형서** 대전오월드가 얼마인지 아세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아주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특정 어떤 사이트에서 대전오월드 치면 자유이용권으로 나오는 게 2만 원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는 3만 4000원 적혀 있고, 스파비스도 5만 5000원이라고 되어 있지만 성수기·비성수기 내용이 좀 다르기는 한데 일반적으로 검색을 해 보면 2만 5000원 정도로 나와요.

그리고 아마존파크는 3만 5000원이라고 되어 있지만 3만 2000원, 베어트리파크는 1만 2000원이라고 되어 있지만 1000원 올랐는지 지금은 1만 3000원이고, 결합상품 3은 동일했고요, 청풍랜드 번지점프도 5만 5000원인데 6만 원이고요, 현재는.

어쨌든 금액도 조금씩 다 달라요.

그리고 우리가 이런 혜택이 있다고 하더라도 한편으로 되게 공허할 때가 있거든요. 어떤 것 때문에 공허할 때가 있느냐면 어지간한 사람들은 다 카드를 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카드 할인 적용받으면 사실 이것보다 더 저렴하게 가요, 우리가 할인을 적용한 것보다 저렴하게도 가고.

물론 그런 대상이 아닌 사람들이 이용하면 참 좋겠지요, 할인을 받고 예산을 지원해 주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민간위탁 용역을 준다 하더라도 우리가 어차피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대한 혜택을 주자고 하는 거면 개인적으로 쓰는 카드가 되었든 지역주민 할인이 되었든 뭐가 되었든 받는 게 있어요.

아산스파비스 같은 경우도 천안·아산·평택 시민들한테는 50% 할인을 해 준다거나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사업을 추진한다고 하면 충남 내에 있는데 평택은 끼워 주는데 당진은 안 끼워 주고 세종은 안 끼워 주고, 충청권이 이런 사업

을 한다고 하면 이런 것에서의 제휴도 필요하겠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MOU 체결을 가지고 예산을 들이지 않고 할인할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이걸 돈으로 메꾸려고 한다면 되게 아깝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민간한테 위탁을 맡겨서 운영을 한다 손 치더라도 우리 선 안에서, 각 지자체별로는 그 지역에 있는 시설들과 릴레이션이 어느 정도 되어 있을 것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제휴되어 있는 금액들에서 우리가 일률적으로 시설에서 25%, 우리가 25% 해가지고 이렇게 할인을 적용할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제휴하고 있는 것에서 추가적으로 혜택을 줄 수 있게끔 하는 방안들도 디테일하게 검토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한 두 달 지났지요. 12월에 우리가 이런 내용을 검토했었고 그 이후에 한 번도 여기 들어가서 금액이 얼마인지 보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아주 간단하게 들어가서만 보더라도 알 수 있는 것, 물론 이게 100% 확정은 아니지만.

우리의 노력이 거기에 머무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돈을 들어서 혜택을 줄 것 같으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자체별로 MOU 체결되어 있는 것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고 우리가 더 돈을 들어서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들이 같이 시너지를 이루어야 경쟁력이 있어질 것이다라는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연합사무처장 이수현** 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그런 섬세한 부분은, 제가 일일이 체크를 못 했던 부분은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단순히 돈을 사용하기 위한 관광상품을 개발하지 않고 연계해서 MOU를 맺는다거나 그런 부분을 충분히 찾아보고,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 쓴다는 취지보다는 예산 범위 안에서 저희가 최소한의 예산을 들어서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는 상품을 찾아보도록 하면서 섬세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구형서** 제가 마지막 한 말씀, 제가 우리 아이를 키우면서 제 아내한테 “내가 어디랑 제휴를 맺어서 이 시설 이용하는 데 50% 할인받아서 2만 5000원이야. 정말 저렴하지? 한번 같이 가자!”라고 기분 좋아서 얘기했는데 인터넷 그냥 검색해보니까 “그거 2만 4000원에도 갈 수 있어. 무리할 필요 없어”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조금 기분이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사전에 미리 알아보면 좀 더 방안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 관점으로 들여다봐 달라는 거예요.

○**연합사무처장 이수현** 예, 충분히 고민하고 저희가 섬세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구형서** 감사드립니다.

더 추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수현 연합사무처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조정 등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36분 정회)

(15시 00분 속개)

○ **위원장 구형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들과 예산안 조정 협의 결과 충청권 광역투어패스 운영, 충청권 광역시티투어 운영 사업에 대한 부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 추진 시 다양하고 실용적인 프로그램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할인율 등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신중하게 사업을 추진하는 조건으로 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1회 충청광역연합 추가경정 예산안은 연합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마치면서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집행부는 사업 추진 시 철저한 준비와 홍보 등으로 추경의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심사 과정에서 동료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셨거나 대안을 제시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 및 사업 등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수현 연합사무처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예산안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01분 산회)

---

○출석 위원(8인)

구형서 김광운 김응규 김현미 안경자 이옥규 이한영 조성태

○출석 전문위원

전 문 위 원 이상희

○출석 공무원

〈충청광역연합회〉

사 무 처 장 이재만

총 무 담 당 관 김미희

〈충청광역연합〉

연 합 사 무 처 장 이수현

초 광 역 자 치 과 장 박승일

초광역산업문화과장 이철구

초광역건설환경과장 오세준